

“광주 왜 예향일까요? 전통문화·민속에 답있죠”

‘빛고를 광주문화’ 펴낸 김형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흔히들 광주를 가리켜 예향 또는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외지인들이 와서 광주가 왜 예향이라고 불리면 딱 부러지게 ‘이런 이유로 예향이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 것 같다. 왜 광주가 예향인가, 라는 물음은 단순하면서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예향으로서의 확고한 개념과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김형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민속박물관) 학예실장은 예향의 의미와 실체를 규명하고 제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그가 ‘빛고를 광주문화’라는 책을 펴내 눈길을 끈다.

답양 출신인 그는 30대 중반 민속박물관에 들어와 20년 넘게 광주의 문화와 민속을 연구했다. 전남대 사학과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국문과 대학원에서 고전문학, 민속을 전공했다. 그는 ‘박물관 문턱에 들어선 지도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다’며 ‘오래 전부터 광주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며 ‘빛고’를 말했다.

최근 기자는 김 학예실장과 문화, 민속, 전통, 지역의 정체성 등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매번 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자리가 그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장국 같은 구수한 분위기와 진정성이 느껴지는 면면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잘 어울렸다.

모든 문화 원텍스트 고전과 전통 인물·문화재·음식·옛이야기 구성 현대 문화 특정 장르 편중 아쉬워 “속담 등 구비문학 연구 할 것”

사실, 작금의 문화 트렌드는 미술과 공연, 미디어아트 분야 등이 강세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전통이나 민속 분야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좀더 작나라하게 말하면 ‘소외’ 내지는 ‘잔발신제’가 돼 있다 고 보는 쪽이 맞다.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농촌민속이나 서민 위주의 기층 문화가 일정 부분 토대를 이뤘는데 지금은 거의 변방으로 밀려나,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민속과 전통 분야 연구자답게 그는 우리 것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광주만의 문화, 광주만의 콘텐츠가 지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

책을 발간하는 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 다. 글을 쓰는 시간은 우리지역의 문화적



토대를 깊게 숙고하는 시간이었다. “문화의 여러 갈래 중 전통 문화는 날로 소외되는 양상입니다. 한마디로 문화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어요. 민속이나 전통 문화의 한 귀퉁이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가 이번에 책을 내게 된 이유도 그런 측면과 무관치 않다. 문화를 통합적으로 바라 봐야 하는데, 작금의 흐름은 지나치게 특정 장르 위주로 편중돼 있다. 예향의 문화 발전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이 같은 불균형과 편중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 책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 까. 그는 모두 4부에 걸쳐 인물, 문화재, 향토 전통음식, 옛이야기 등을 갈무리했다. 광주의 인물은 범세동, 이선재, 박상, 고경명, 전상의 등을 비롯해 근대시기 최흥

종 목사와 박용철 시인까지 10인을 다룬다. 문화재 부분은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와 지방문화재들을 일별한다. 전통 음식에는 애저찜, 용봉탕, 송정떡갈비, 무등산 보리밥, 증심사 닭요리 등이 있다. 광주가 미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풍부한 물산, 넉넉한 인심, 깊은 정성, 뛰어난 손맛에서 찾는다.

광주 옛이야기 분야는 전설과 민담 등 주요 설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김 학예실장은 “원도심은 무등산과 광주천이 핵심 소재가 돼 전개되는 반면 김덕령과 경양 방죽 설화가 집중 분포돼 있다”며 “광산지역은 어등산과 황룡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20년 넘게 민속박물관에 근무하면서 그는 ‘광주 길과 풍물’ 기획전을 비롯 ‘광주의 설화’, ‘광주의 토속마을’, ‘광주의 민속’ 등과 같은 조사를 해왔다. 이제는 전통 문화가 다소 식상할 것도 같다는 말에, 그는 “모든 문화의 원텍스트는 우리의 고전과 전통에 닿아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앞으로 그는 음식 관련 속담, 주요 동리의 지방 유래뿐만 아니라 구비문학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에는 문화인프라의 상부구조(콘텐츠)와 하부구조(시설물)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대한 담론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치밀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과제목표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빵 만드는 공원 김원중의 달거리’ 105번째 공연

27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빵 만드는 공원 김원중의 달거리” 105번째 공연이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컬에서 열린다. 올해 첫 무대인 이번 공연의 주제는 ‘엄치’로, 전라도를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이들을 향한 규탄에 중심을 뒀다. 가수 김원중과 ‘너티나루밴드’를 비롯해 소프라노 유영민, 민중가수 듀오 ‘꽃향’, ‘우물안개구리’, 제9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광주음악인합동공연팀이 출연한다. 이날 김원중과 ‘너티나루밴드’는 80년 5월 고립된 광주를 표현한 곡 ‘바위섬’과 ‘광주전’, ‘담쟁이’ 등을 무대에 올린다. 또 ‘광주는 주눅들 게 아니라 승리자로서 춤을 춰야 한다’는 의미가 담

긴 곡 ‘춤춘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초대 손님 VR 아티스트 최석영이다. 심리치리 VR 개발자이자 미디어와 VR 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뉴미디어 아티스트로, 이날 공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리 VR 작품 ‘오월, 꽃이 피다’를 선보인다. 한편 올해 김원중의 달거리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컬에서 펼쳐진다. 입장료는 감동후불제로 진행된다. 입장료 대신 공연 이후 관객이 감동 만큼의 금액을 모금함에 넣는 방식으로,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문의 010-3670-580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대가 가장 많이 빌린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20대가 가장 많이 빌린 책은 일본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전국 845개 도서관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에서 최근 3년간 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20대 대출 건수 1만3779건으로 문학과 비문학 도서를 통틀어 가장 인기가 높았다.

다음으로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가 9035건, 하야마 아미리 작품인 ‘스물아홉살의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가 9239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8898건, 정유정 소설 ‘7년의 밤’이 8655건으로 각각 문학 부문 4위, 5위에 올랐다.

비문학 도서 중에는 기시미 이치로가 집필한 ‘미움받을 용기’가 8753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대출 건수 8703건인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이 차지했다.

한편 문학 인기대출도서 상위 200위를



분석한 결과 히가시노 게이고의 도서가 28권, 기욤 뫼소의 도서가 12권,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서가 10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도서가 7권, 조앤 K. 롤링의 도서가 5권이 었다. 한강, 정유정, 김영하, 구병모 작가는 도서는 각각 4권씩이었다.

또한 비문학 인기대출도서 상위 200권에는 ‘심리학’ (40권), ‘자기계발’ (16권), ‘창의적 사고’ (14권), ‘여성문제’ (14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학 도서는 타인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주목한 도서가 많았으며 심리적 안정, 행복과 인간관계를 다룬 도서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의 텃말인 향토어 맛갈스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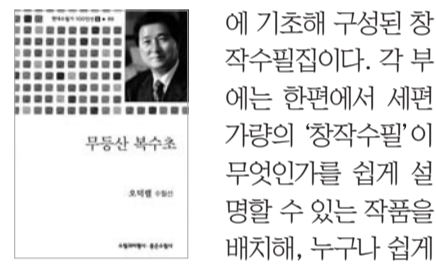
오덕렬 ‘무등산 복수초’ 발간

우리의 텃말이라 할 수 있는 향토어를 살리고 이에 대해 일일이 해석을 단 수필집이 발간돼 화제다.

오덕렬 수필가의 ‘무등산 복수초’가 최근 발간됐다.

수필과비평사·좋은수필사는 시대를 대표할 만한 수필가를 대상으로 ‘현대수필가 100선 II’를 기획, 오 수필가의 작품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수필과비평사·좋은수필사는 해마다 발표되는 많은 수필 중에서 문학성 높은 작품을 발표하는 수필가의 작품집을 펴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오 수필가의 ‘무등산 복수초’는 수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집이다. 오 수필가는 ‘붓 가는 대로’를 배격하고 현대문학 이론의 창작론에 기초한 문학으로서의 수필을 지향한다.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수록된 작품은 현대문학 이론의 창작론



에 기초해 구성된 창작수필집이다. 각 부에는 한편에서 세편 가량의 ‘창작수필’이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을 배치해, 누구나 쉽게 수필을 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서(自序) 내 수필은 무엇이 변했나’, ‘수필 시학(詩學)’, ‘옛세 (Essais)’, ‘2015, 문창수 합의문’, ‘정자나루’, ‘나의 꿈, 나의 비전’ 등이다.

특히 각 수필에서 저자는 우리의 텃말을 맛갈스럽게 구사해 잊혀져가는 우리말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오 수필가는 “이번 ‘무등산 복수초’는 창작수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펴낸 작품”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민사회 필요한 상호존중과 배려의 인문학

인문지행·광주평생진흥원 28일부터 책방 심가네박씨



나희덕 시인 장춘석 교수

시민인문학 공동체 ‘인문지행’이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하는 ‘배려와 존중의 인문학’이 오는 28일부터 책방 심가네박씨 (광주 동구 동명로 67번길 22-2)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사회에 필요한 상호존중과 배려의 인문 정신을 이해하고 그 가치의 공유를 확산하는 데 있다.

본 프로그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총 9회의 일 반 강좌(화요일 오전 10시)와 2회의 토 요특강(오후 3시)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 강연을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강좌의 세부 내용은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저항 정신, 인권의 회복과 실현, 상호인정과 공동체적 행복의 조건 등이며 동양의 고전 ‘소동파’에서 서양의 고전 ‘일리아드’ 까지 아우른다.

먼저 오는 28일 첫 시간과 6월 4일 두 번째 시간은 박해용 철학박사가 각각 ‘권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상호인정 투쟁,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11일에는 조덕진 무등일보 문

화부장이 ‘인권과 지역 언론의 역할’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눈다. 18일과 25일에는 장춘석 전남대 교수가 ‘자유정신을 위한 시문-소동파를 읽는다’, ‘주연으로 읽는 인간 이해’를 강의한다. 이어 29일은 나희덕 시인이 ‘시, 타자의 목소리’를 주제로 강연한다.

7월 2일과 9일은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의 ‘여성, 태어나거나 만들어지거나’와 ‘여성과 작가만의 방’이 예정돼 있다. 13일은 박홍규 영남대 교수의 ‘현대적 저항적 삶에 관하여’가 진행되며 16일과 23일은 심옥숙 대표의 ‘호머의 ‘일리아드’-자유를 위한 용기’, ‘호머의 ‘일리아드’-공동체적 삶을 위한 조건들’이 펼쳐진다.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30명이다. 문의 010-5205-5668, 인문지행 카페 참고.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라발레 학원
서구 내방로235 삼화빌딩 2층
고급 댄스 플로어 시설에서의 수준별 정원으로
세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클래스가 이루어집니다.
유아발레, 초등발레, 중·고등발레, 성인발레 전문학원
☎062)381-0065

크린토피아 광주본선제일풍경채점
남구 봉선동 516-18
와이셔츠세탁, 이불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운동화세탁소
☎062)676-7705

백세 짬뽕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짬뽕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업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빌딩)
하모(참차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헤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꼬아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본위
☎010-9277-2011, 010-4624-8457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